

<서평>

『그리스어야 놀자』  
(김창락, 서울: 분도출판사, 2022)

정혜진\*

## 1. 들어가는 말

김창락 교수가 지난해 4월 『그리스어야 놀자』라는 제목의 그리스어 어휘집을 출간했다.<sup>1)</sup> 분도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은 74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일반 단행본보다 큰 크라운판으로 제작되어 첫인상에 묵직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책 속을 들여다보면 활자가 크고 여백도 넉넉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며, 사이사이 보이는 삽화들은 친근하게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리스어로 신약성서를 읽고자 하는 학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휘능력을 쉽고도 재밌게 갖추게 하려는 뜻에서 저술되었다. 저자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리스어 단어들에 그 첫 글자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된 24개의 장 안에 배치하여 소개한다. 각 장마다 단어를 3단계로 나누어 배열하는 것이 특징인데,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저자가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연상법과 분석법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연상법은 “외국어 낱말의 발음 또는 의미가 모국어의 어떤 낱말과 유사할 경우에 그 양자를 관련지어 암기하는 방식”이고, 분석법은 “외국어 낱말의 구성요소를 어원상의 의미로 분석하여 한데 모아서 암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방법 다 효율적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는 단어를 포괄할 수 없기에, 저자는 둘 모두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학습해야 하는 단어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대 강사. [beatus@chol.com](mailto:beatus@chol.com).

1) 김창락, 『그리스어야 놀자』 (서울: 분도출판사, 2022).

들을 다 포획하고자 한다.<sup>2)</sup> 또한 만화가 박흥렬의 삽화는 저자의 설명이 강조하는 지점을 잘 포착하여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려주고 있어서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어야 놀자』는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신학으로 전향하여 신약성서 연구와 교육에 힘써온 김창락 교수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작업의 결과이다. 저자가 교수로 재직하던 한신대학교에서 퇴직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속했던 성경 원문 번역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되어 뜻깊고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김창락 교수의 연구 및 활동의 맥락에서 『그리스어야 놀자』 출간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 책의 강점과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2. 김창락 교수의 연구/작업과 『그리스어야 놀자』

저자인 김창락은 193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영문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지인의 소개로 중앙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남들보다 늦게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학 공부에 들어서며 매료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겠다는 다짐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루이제 쇼트로프(Luise Schottroff) 교수의 지도하에 바울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다.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창락은 사회적 비평은 물론 민중신학적 통찰을 담은 성서해석을 하는 한편,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인권과 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글들을 쓰기도 했다.

복음서 전공자인 필자에게 김창락은 예수의 비유를 해설한 저서의 저자로 가장 먼저 인식되었지만,<sup>3)</sup> 그가 우리 신학계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부분은 바울 연구라 할 수 있다. 바울의 인의론(認義論)을 다룬 논문과, 갈라디아서 주석은 바울 신학을 넘어 흔히 개신교 신학의 정수라 여겨지는 영역에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연구로 평가된다.<sup>4)</sup> 무엇보다 ‘의(義)’라는 표현이 구약성서로부터 바울까지 어떤 문맥에서 또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그의 통찰은 관념적인 해석과 교리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바울 신학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문제제기는

2) Ibid., 9.

3) 김창락, 『위로 보는 비유의 세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4) 김창락, “바울의 인의론: 무엇이 문제인가?”, 『새로운 성서해석과 해방의 실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71-392; 김창락, 『성서주석: 갈라디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야 놀자』의 책날개에서 저자 소개를 하며 언급 되듯이, 신약성서 원문을 당대의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그가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성경전서 표준새번역』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거쳐 지금의 『성경전서 새번역』이 자리잡는 데 그의 노고가 크다. 『성경전서 새번역』을 열렬히 참조하는 성서 독자로서 김창락 교수께 깊이 감사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스어야 놀자』는 저자가 영어교사이던 시절부터 터득한 교육에의 열정이 담긴 책이다. 한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저자는 남은 시간 후학들이 그리스어부터 쉽고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기회를 바랐는데, 『그리스어야 놀자』가 바로 그 결실이다.<sup>5)</sup>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만년 지각생’으로서 신학에 입문하기 전 어린 시절부터 낯선 외국어를 배우며 단어를 외우던 저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학자이고 교육자이기 전에 먼저 ‘학도’였던 그가 체득한 공부방식을 오랜 교육자의 연륜으로 단련시켜 우리에게 이 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오래전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에서 사용했던, 친절한 경어체로 대화하는 방식을 다시 선택한 것도 저자의 의도일 것이다.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하듯 전개되는 방식이 가장 큰 이 책의 좋은 점인데, 아래에서는 그리스어 어휘집으로서 강점을 부각해 살펴보겠다.

### 3. 『그리스어야 놀자』의 강점과 유용성

#### 3.1. 강점 1: 연상법을 적극 활용한 어휘의 기억법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beverage(음료)’라는 단어를 쓰고 “음료를 마시려면 어떻게 하니? 병뚜껑을 ‘빼 버리지?’”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다. 그 선생님은 관련된 ‘베버리지’와 한국말 ‘빼버리지’가 발음이 유사한 것을 고리 삼아 영어 단어를 쉽게 기억하도록 연상법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단어의 뜻과 함께 이때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연상법 덕분일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창락 교수는 연상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독자에게 그리스어 단어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첫 글자 앞에 ‘1’과 ‘2’를 붙여 소개하

5) 김창락, 정혜진, “성서와 바울에 빠져든 만년 지각생, 김창락 교수”, 『기독교사상』 756 (2021. 12.), 51-71 참조.

는 표제어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1’이 붙은 표제어들은 (어원이나 뜻이 관련이 없더라도) 철자 및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묶인 단어들이며, ‘2’가 붙은 표제어들은 철자와 발음 외에도 어원이나 의미까지 연관되는 단어들의 모음이다.

특히 한국어가 모국어인 독자들에게 한국말 표현을 공통분모로 한 설명은 이해하기가 쉬워서, 생소한 언어를 알파벳부터 배워야 하는 입문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재미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콜라 잡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 시장을 ἀγορά라고 해요.<sup>6)</sup>

여자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듯 ‘결혼하다’는 γαμέω예요.<sup>7)</sup>

쌀장수가 쌀 속에 돌을 섞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면, δολόω는 ‘불순물을 섞다’이고, δολιόω는 ‘속이다’라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요?<sup>8)</sup>

성실한 농부는 언제든지 해토(解土)할(=땅을 갈)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준비가 된’이라는 뜻의 ἔτοιμος...<sup>9)</sup>

κόραξ[까마귀]의 새까만 꼬락서니... (337)<sup>10)</sup>

말랑말랑해 보이는 사람은 ‘유약한, 연약한’ 인상을 풍기지요. 이처럼 μαλακός는 ‘부드러운, 연약한’을 뜻해요.<sup>11)</sup>

깨끗하게 차려입은 남의 새옷을 더럽히면 미안해 해야 하니까 μυαίνω [얼룩지게 하다, 더럽히다, 오염시키다]예요.<sup>12)</sup>

사람을 설득하려면 폐부를 찌르는 말을 콜라 해야 하는 것처럼 ‘설득하다’는 πειθω.<sup>13)</sup>

6) 김창락, 『그리스어야 놀자』, 65.

7) Ibid., 149.

8) Ibid., 187.

9) Ibid., 225.

10) Ibid., 337.

11) Ibid., 393.

12) Ibid., 404.

13) Ibid., 492.

πέτομαι는 퍼트득 하는 날갯소리를 내며 ‘(새가) 날다’를 뜻해요.<sup>14)</sup>

σέβομαι와 σεβάζομαι는 세배를 드리는 자세처럼 신적인 대상을 ‘예배하다, 숭배하다, 공경하다’를 뜻해요.<sup>15)</sup>

‘자객, 암살자’라는 뜻의 σικάριος를 기억하려면 몸에 날카로운 식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떠올리면 되지요.<sup>16)</sup>

농부가 소를 구출해 내는 것과 연관시켜 σώζω[구원하다]를 기억하세요.<sup>17)</sup>

‘아이’는 엄마의 태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τέκνον/τεκνίον이라 했어요.<sup>18)</sup>

겨울철에 기운이 갑자기 내려가면 내리던 비가 곧 ‘눈’으로 변하지요. χιών은 ‘눈’이에요.<sup>19)</sup>

ku-로 시작하는 낱말들이니 구[球]와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구[球]=공은 뒹굴뒹굴 잘 굴러가지요. κυλίω는 ‘굴리다’, κυλίομαι는 ‘뒹굴다’예요. κυλισμός는 ‘구르기, 뒹굴기’예요. ku-는 뒹구는 동작만을 뜻하지 않고 공처럼 둥근 형태를 뜻하기도 해요. κύκλος는 ‘원, 동그라미’를 뜻해요. κύκλω는 ‘주위에’를 뜻해요. κυκλεύω는 ‘에워싸다, 둘러싸다’를 κυκλόω도 ‘에워싸다, 포위하다’를 뜻하기도 하고, 또 ‘빙 둘러가다’를 뜻하기도 해요. κυκλόθεν은 ‘주변에 도처에’를 뜻해요.<sup>20)</sup>

이상의 예에서 보듯 저자는 발음이나 뜻이 유사한 우리말 표현을 매개로 그리스어 단어를 풀이하는데, 마지막 예에서 보듯 이는 한 단어를 넘어 어원이 같은 여러 단어들을 묶어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원상의 공통점이 없는 단어들이더라도 우리말 속담이나 관용표현을 매개로 철자가 유사한 그리스어 단어를 묶어서 외우게 하는 연상법도 있다.

14) Ibid., 523.

15) Ibid., 586.

16) Ibid., 592.

17) Ibid., 623.

18) Ibid., 648.

19) Ibid., 717.

20) Ibid., 350.

‘부모 밑에서’라는 직접적 표현보다 ‘부모의 슬하에서(무릎 아래서)’라고 하는 것이 더 품위 있게 받아들여져요. 그리스어에서도 γονεύς[부모]와 γόνυ[무릎]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맺어져 있는 모양이에요.<sup>21)</sup>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분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하지요. 생리학적으로 정말로 χολή[쓸개]가 화를 분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χολάω가 ‘골을 내다, 분개하다’를 뜻하니까 χολάω와 χολή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sup>22)</sup>

저자의 연상법은 위의 예들처럼 우리말 표현을 매개로 할 때 가장 쉽고 흥미롭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어원상의 실질적 관련은 없어 보이는 단어라 하더라도, 철자나 발음상의 유사성을 부각하거나 의미상의 연관성을 상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짧은 문장이나 간단한 서사 속에서 함께 기억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βίβλος[책, 문서]의 말씀을 영[靈]의 양식으로 날마다 βιβρώσκω[먹다] 했어요.<sup>23)</sup>

Ἀριστοτέλης[아리스토텔레스]가 ἄριστον[아침식사, 점심식사, 식사]를 하고 있네요.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ἀριστάω[식사하다] 하고 있군요. … 저것 좀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왼손잡이인가 봐요. ἀριστερός[왼쪽] 손으로 먹고 있잖아요(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왼손잡이였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철자상으로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뿐이에요). ἡ ἀριστερά는 ‘왼손’을 뜻해요.<sup>24)</sup>

사도행전에 따르면 Παῦλος는 세 번의 선교여행을 했어요. … 제1차 선교 여행의 활동은 Πάφος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거기서 활동을 παύω[멈추다, 그치다] 하지 않고 아나톨리아로 건너가서 계속 이어 갔어요.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 모두 πεζῆ[도보로] 걸어 다녀야 했어요. … πεδινός[평평한] 땅을 걸을 때에는 그래도 견딜 만 했지만, 험한 산길을 걷는 것은 마치 발에 무거운 πέδη[족쇄, 쇠고랑]을 채워 놓은 듯 더 힘들었을 거예요.<sup>25)</sup>

21) Ibid., 157.

22) Ibid., 718.

23) Ibid., 128.

24) Ibid., 24.

25) Ibid., 491.

물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손잡이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서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듯 “철자 상의 공통요소를 공통분모로 하여 한 집단으로 묶어놓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든지 그들 사이에 한 가족으로서 공통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꾸며 낸” 것이기 때문이다.<sup>26)</sup> 그러나 ‘왼손잡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식사를 상상하고, 사도 바울의 도보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 낯설기만 하던 단어들 이 하나로 연결되며 더없이 친숙해지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단어를 한 단락으로 연결하여 함께 외우도록 하는 장치는 그것을 익숙하게 활용해온 저자가 후학들인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로 그 연상법의 결정체이다. 이 방법을 저자는 본서의 첫 장인 ‘A’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Ω’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한 꾸러미로 연결해서 외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 책 마지막 장의 첫 단락을 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풀인 지점인 Ω/ω 고지를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Ω/ω 산봉우리의 기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니 우리 입에서 ὤ[오!]하는 감격의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네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루었다”는 승리의 ᾠδή[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네요. 이 감격적인 순간이 있기 위해서 그동안 ὄδιν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견디어 내어야만 했음을 당사자들 말고 누가 감히 상상하겠어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의 ὄμω[어깨]에 메고 그 고통을 ὄδινω[고통을 겪다, 고통을 당하다]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에요.<sup>27)</sup>

신약성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정복하겠다는 목표는 원대하고 그 과정은 어렵지만, 저자가 친절하게 전개하는 이와 같은 문장들에 빠져서 이야기를 들듯, 때로는 장난하며 놀듯 따라가고 있다면 학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본서의 제목에 ‘놀자’라는 청유형이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3.2. 강점 2: 분석법을 활용한 합성어 심화 학습

알파벳 앞에 ‘3’이 붙은 표제어들은 동일한 접두사로 구성된 낱말들의 모

26) Ibid., 10.

27) Ibid., 739.

음이다. 그리스어에는 전치사와 결합하는 합성어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 속하는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지난한 일이다. 이 작업을 돕기 위해 저자는 합성어 안에서 같은 전치사가 각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분류하여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K’ 항목에는 ‘κατά’와 결합하는 단어들을 20개의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서 정리하고 있다.<sup>28)</sup>

- (1)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아래로 향하는 운동의 방향을 표시한다 (καταβαίνω[내려가다/오다] 외)
- (2) 무거운 것이 내리누르는 작용을 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βαρύνω [[줄리거나 피곤하여 눈이] 무겁게 내려 감기다] 외)
- (3)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알잡아보거나 멸시 또는 하대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γελάω[비웃다, 조롱하다] 외)
- (4) 아랫사람에게 권위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δουλόω[중으로 삼다, 종살이시키다] 외)
- (5) 권한을 가진 자가 주로 언어활동으로 하급자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λαλέω[비방하다, 헐뜯다] 외)
- (6) 어떤 위압적인 힘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βοάω[항의하여 소리치다] 외)
- (7) 무엇을 역으로/반대로 돌리는/뒤집는 것을 뜻한다 (καταστρέφω[둘러엎다, 뒤집다] 외)
- (8) ‘철저히, 송두리째, 온전히’를 뜻한다 (κατακαίω[불사르다, 다 태워버리다] 외)
- (9) 안정 또는 정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κατασκευάζω[준비하다, 짓다] 외)
- (10) 접촉 또는 밀착을 뜻한다 (καταφιλέω[입맞추다] 외)
- (11) 접촉된 것에서 분리 또는 이탈을 뜻한다 (κατάγνυμι[썩다, 부러뜨리다] 외)
- (12) 어떤 것을 하사[下賜]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ευλογέω[축복하다] 외)
- (13) 뒤에 남긴다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λείπω[[뒤에] 남겨두다] 외)
- (14)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살피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μανθάνω[자세히 배우다, 자세히 살피다] 외)
- (15) 상하로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낸다 (κατασειώ[[손을] 흔들다, 신호하다] 외)
- (16) 내리덮거나 휘장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καλύπτω[자기의 머리를 덮다] 외)
- (17) 들여다보는 것, 즉 거울에 비춰보는 것을 뜻한다 (κατοπτρίζομαι [거울에 비춰보다])

28) Ibid., 352-362.

- (18) 내리게 하는 것을 뜻한다 (καταλύω[식히다, 서늘하게/시원하게 하다] 외)
- (19) ‘사방에, 두루, 널리’를 뜻한다 (καταγγέλλω[선포하다, 널리 퍼뜨리다] 외)
- (20) ‘앉다’, ‘놓다’, ‘눅다’와 그 관련어들 (κάθημαι[앉아 있다, 앉다, 자리 잡다] 외)

이렇듯 동일한 전치사라도 접두사로서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각기 다른 의미의 전환 또는 부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저자가 나누어 밝혀준 단어들을 읽어간다면 독자들의 역량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합성어 단어의 양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먼저 ‘1’과 ‘2’가 붙은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학습하고 난 후에 각 알파벳의 ‘3’ 표제어 부분을 학습하는 것도 좋은 요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3.3. 강점 3-4, 그리고 아쉬운 점

마지막에 다루지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이 책의 장점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단어 암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독창적인 풀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박흥렬의 삽화들이다. 가령 책 표지에도 나오는 첫 번째 삽화를 예로 들어보자.<sup>29)</sup>



수탉(ἀλέκτωρ)의 빨간 벼슬 모양 장식이 달린 투구를 단 장수가 있다. 그

29) Ibid., 21.

는 말을 달리는 알렉산드로스(Ἀλέξανδρος) 대왕인데 그가 활시위를 당겨 겨누는 활은 다름 아니라 한 마리 여우(άλωπηξ)를 향해 있다. 이 삽화 덕분에 독자들은 그리스어 단어 세 단어를 한 번에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글로만 보아서는 다가오지 않았던 저자의 상상도 삽화를 통해 선명하게 뇌리에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강점은 이 책에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를 활용해서도 그리스어 어휘를 설명하려고 하는 저자의 성실한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언급하는 모든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우리말과 영어를 병기해서 실려 있고, 그리스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을 별도의 ‘팁’으로 부연하여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아래 인용 참고).<sup>30)</sup> 특히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영어 단어들이 주로 학명이나 병명 같은 전문용어인 것을 감안하면, 독자들은 이 책을 독과해 가는 것만으로 그리스어와 영어 어휘능력의 동반상승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tip 1** 영어 dysentery(이질, 설사병)은 δυσεντέριον의 음역이다.

**tip 2** 영어 dysbarism(감압증[減壓症]), dysfunction(역기능[逆機能], 기능장애), dysgenics(열생학[劣生學], 역도태[逆淘汰]), dysgenic(열생학의, 역도태의), dysgraphia(필기 불능), dyskinesia(운동 이상증), dyslexia(난독증, 독서 장애), dyslexic(실독증[失讀症]의), dyslogia(사고 장애, 논리 장애, 언어 장애), dyslogistic(비난의, 욕하는), dysmenorrhea(월경 곤란[불순], 월경통), dysmetria(측정 장애), dysmorphology(기형학[畸形學]), dyspathy(동정심의 결여, 반감, 악감정), dyspepsia(소화불량), dyspeptic(소화불량의), dysphasia(부전 실어증[不全失語症]), dysphemism(위악 어법[偽惡語法]), dysphonia/-ny(발음 곤란, 발성 장애), dysphoria(불쾌감), dysplasia(형성 장애, 이[異]형성), dyspnoea(호흡곤란), dyspraxia(통합 운동 장애), dystopia(utopia의 반대, 디스토피아, 반이상향), dystrophy/-phia(영양실조, 영양불량), dysuria(배뇨 장애, 배뇨 곤란) 등등은 그리스어 접두사 δυσ-와 결합하여 생성되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서의 강점은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닐 것이다. 독자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그 강점은 더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들자면 그리스어 단어 색인이 없다는 점이다. 단어들을 알파벳 철자에 따라 배치하고 있어서 단어 찾기가 어려

30) Ibid., 194.

운 것은 아니지만, 각 장 안에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단어가 배열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책 말미에 단어 색인이 있었다면 이 책의 유익함을 배가시켰으리라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이 많이 알려져서 재판을 찍을 때는 그리스어 색인까지 첨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김창락 교수의 『그리스어야 놀자』 출간의 의미와 강점, 유용성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저자는 영어교사를 하다가 ‘만년지각생’으로 신학에 입문하여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그리스어 원문 성서와 우리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헌신했던 노학자이다. 그가 후학들에게 선물처럼 남기는 공부 노하우를 이 책 한 권으로 경험할 수 있음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책 뒷표지에 나오는 정양모 신부의 추천사에도 언급되듯이, 본서가 “지금까지 출간된 그리스어 어휘 관련 도서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내실 있는 책”이라는 데 필자도 깊이 공감한다. “입문자라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생소한 외국어 장벽을 단숨에 날려 버리면서 신선한 그리스어의 학습 세계로 초대”하는 본서를 많은 신학생들과 대중들이 만나게 되길 바란다. 독자들께 『그리스어야 놀자』를 훌륭한 *παιδαγωγός* (몽학선생/초등교사)로 추천한다.

##### <주제어>(Keywords)

그리스어 성서, 어휘집, 어휘, 김창락, 그리스어야 놀자.

Greek Bible, lexicon, vocabulary, Chang-Nack Kim, Let's Play with Greek Vocabulary.

(투고 일자: 2023년 2월 1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3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김창락, 『그리스어야 놀자』, 서울: 분도출판사, 2022.
- 김창락, “바울의 의인론: 무엇이 문제인가?”, 『새로운 성서해석과 해방의 실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김창락, 『성서주석: 갈라디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창락, 정혜진, “성서와 바울에 빠져든 만년 지각생, 김창락 교수”, 『기독교사상』 756 (2021. 12.), 51-71.

<Abstract>

**Book Review – *Let's Play with Greek Vocabulary*  
(Chang-Nack Kim, Seoul: Benedict Press, 2022)**

Hye-Jin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Greek-Korean lexicon, *Let's Play with Greek Vocabulary* (GEURISEOYA NOLJA in Korean) in the context of the author's career and introduce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book not only has 744 pages but is also bigger in size than regular books, giving the impress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tudy Greek with it. However, it is the work of an English teacher-turned-New Testament professor, carefully designed for use by beginner-level Greek students.

It aims to help students who want to learn *Koine* Greek acquire their Greek vocabulary as quickly and easily as possible. To achieve this goal, the author includes almost all the Greek words in the New Testament, and introduces them in the 24 chapters ordered according to letters of the Greek alphabet. Furthermore, he uses three creative methods to help students, that is, association, analysis, and illustrations.

First, association method utilizes the similarity of pronunciation or meaning between a foreign word and a native word to memorize the word. Second, analysis method analyzes the components of foreign words by etymology to memorize them together. Third, illustrations vividly bring up the image the author presents.

Despite its many strengths, it lacks the Greek word index. It is not so difficult to find words because chapters are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But within each chapter, it can be a little inconvenient to find them as they are not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and some words are repeated here and there. It will be more helpful for students if there is an index at the end of the book.

In conclusion, this book will be useful and helpful for *Koine* Greek learners.